

북한개발소식

09

2021 SEP | 통권 191호

| 이달의 주제 |

코로나 19 팬데믹 장기화와 북한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코로나 19 팬데믹 장기화와 북한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1 SEP

이달의 주제 :

코로나 19 팬데믹 장기화와 북한

권두칼럼	01	코로나 19 팬데믹 장기화와 북한
칼럼_1	08	오픈도어 현장사역자_ 코로나와의 공존(with corona)으로 가기까지 북한이 거쳐야 할 길
칼럼_2	15	양운철_ 코로나19 사태가 북한에 미친 영향과 전망
칼럼_3	20	문성묵_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과 이후의 전망
현장 르포	26	노정민_ 2021년 북·중 국경의 현주소
북한 뉴스	31	한미, 대북인도협력 논의...성김 “北에 적의없어·언제든 만날 것” 외
서평	35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 핵 보유 이후 국가의 행동 변화
북한 기도 제목	39	북한정권이 코로나 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하고 북한주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기도합니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예상보다도 더욱 장기화되고 있다. 예상보다 빠르게 백신이 개발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기대되었으나, 백신 수급 부족과 계속된 코로나19 변종의 출현으로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다보니 각 국은 방역의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모양새이다. 방역만을 생각한다면 강도 높은 격리(Quarantine) 및 봉쇄(Lockdown)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고강도의 방역 조치는 개개인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벌써 2년여의 긴 기간 동안 팬데믹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장기간의 코로나 방역 활동으로 인한 피로감도 상당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종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백신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접종률이 높은 영국과 같은 국가의 경우는 실제로 ‘위드코로나’(With Corona)를 실험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대부분의 국가들에게는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초기부터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해 국경을 걸어 잠궜던 북한 역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이제는 북한 당국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보건, 의료, 위생 여건이 열악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해왔던 북한으로서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큰 딜레마가 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북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남북 교류 협력 및 NGO 활동, 국경 인근 사역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선교의 기회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코로나가 북한에 미친 영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코로나 감염자 발생 및 질병 유행

에 따른 어려움일 것이다. 북한 당국은 팬데믹 초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 0명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코로나 검사 역량과 강도 높은 국내 이동 통제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WHO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으로 누적 격리자만 3만여명에 달했지만 당시 검사수는 3천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 확진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기 어려워 선별적인 방역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결국 북한은 감염자 확인이나 감염경로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강력한 이동통제와 봉쇄, 그리고 의심증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광범위한 코로나 전파는 막았는지 모르지만 접경지역에서는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는 사망자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또한 열악한 격리 환경과 과도한 이동 통제 및 시장 활동 제한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강력한 통제를 통한 코로나 방역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북한도 국경 봉쇄로 인한 무역량 급감이 북한 경제 전반에 크게 악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된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대중 수입은 4억 9,110만 달러로 19년도 25억 달러 대비 80%가량 급감하였다. 수출 역시 4,800만 달러로 19년도 2억



〈과학기술과 자력강생을 강조하는 북한의 선전화〉

1,520만 달러 대비 77%가량 감소하였다. 이렇게 최소한의 수출입만 이루어지게 되면서 수입 물량의 대부분이 필수품에 준하는 농산물이나 섬유 의복 물품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그마저도 절대적인 액수로는 60% 이상 감소한 수치이다.² 대외정책연구원의 최장호, 최유정은 북한이 먹고 살기 위한 필수품 위주로 수입을 이어가고 있으며 당장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의 식량난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원부자재 공급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한 산업 침체 및 생산량 감소 문제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했다.³ 한국은행이 조사한 북한의 2020년 경제성장률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6년(-6.5%) 이후 가장 큰 낙폭인 4.5%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⁴ 2021년에도 같은

2 최장호 최유정, “2020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1년 3월 3일 Vol. 21 No. 2, 대외정책연구원, 5-9

3 위의 글, 20-21.

4 신호경, “작년 북한 경제성장률 -4.5%...2003년 수준으로 뒷걸음” 연합뉴스, 2021.07.30. <https://www.yna.co.kr/view/AKR20210730076800002>

상황이 이어진 만큼 경제 침체는 불가피해 보인다.

강도 높은 방역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를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질서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듯하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를 국가 경제의 자립적 구조를 완비하고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비록 현재는 민생경제가 악화된 상황이지만 국가적인 자력강생 역량 강화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북한 경제 전반의 체질이 향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⁵

물론 자력강생전략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이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연구위원은 북한의 자력강생전략이 정책적 혼선과 아울러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구상에 불과하다고 진단한다.⁶ 이 외에도 북한이 코로나를 사회주의 국가 경제 체제의 회생 기회로 삼고 국경 봉쇄로 시장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가운데 국영 경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을 통한 경제활동으로 향상된 여성의 지위가 다시 하락할 것이라는

5 임을출, 2021,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성과, 한계와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평가와 전망 세미나 자료집, 11-13.

6 조한범, 2021,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변화와 자력강생노선의 한계”,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1-08.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23de901c-dc12-4d94-85cf-ae0803f3b9dd>

분석도 나오고 있다.⁷

북한 당국은 불가피한 상황을 나름대로 자력강생 역량 강화와 사회주의 국가 경제 복원 등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지만 이미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러한 행보가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당장 심각해지는 경제상황은 분명 큰 부담이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감 때문인지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4월 세 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고난의 행군’을 언급하기도 했다. 90년대 대기근 때와 같은 식량난과 아사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겠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진다면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면 민심이 악화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에 북한 당국이 위민현신을 이야기하고 민생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부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올 6월에 있었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도 1순위 과제는 ‘민생 안정’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는 전원회의 첫날(15일)부터 이례적으로 식량난을 인정했고 특별명령서를 통해 군량미를 풀어서라도 식량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6월 29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군에 대해 문책인사를 단행한 것은 이 과정에

7 “북한서 코로나로 시장 붕괴하면서 여성 위상도 추락 가능성”, 매일경제, 21.08.25.

서 실제 보고보다 군량미가 부족하여 급하게 중국에서 식량을 조달한 것이 발각된 것이 그 이유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⁸

이러한 북한 당국의 행보와 군량미 이슈는 북한의 경제사정이 매우 녹록치 않으며 가장 중요한 식량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극복과 북한

코로나 완전 종식은 불가능한 목표가 되어가고 있다. 코로나는 델타에서 람다까지 계속 변이를 일으키며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고 방역과 격리조치를 이어갈 수도 없다. 결국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그나마 현 시점에서 가능한 유일한 대응책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방역으로 인한 경제적 난관 및 정치적 부담을 극복하는 근본 방안은 결국 백신 접종일 수밖에 없다.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백신 접종이 미뤄지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북한은 계속해서 국경 봉쇄와 이동 통제 등 관련 방역 활동을 상당한 강도로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은 부담을 북한도 한정 없이 감수할 수만

은 없을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며 국제적 양극화 현상도 관찰되고 있다. 몇몇 선진국들은 기존의 2회 접종을 넘어서 돌파감염을 막기 위한 소위 부스터샷(Booster shot)이라 불리는 추가 접종을 추진하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까지 백신 수급 문제로 1회 접종조차 충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백신 확보와 접종을 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8월 말 기준 세계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못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이기 때문이다.⁹

현재 북한이 확보한 백신은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199만 2천 회분이며 이중 170만회분이 올해 5월까지 공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과 효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부작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길 꺼리고 국제요원 입국 거부 및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백신 부족 사태가 맞물리면서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¹⁰ 북한은 2~8℃의 표준 냉장을 해야 하는 아스트라제네카(AZ) 수송에 필요한 콜드체인은 갖추고 있

지만 이마저도 불안정한 전력 상황으로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극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영하 70도)나 모더나(영하 20도)의 경우는 콜드체인을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코백스는 북한에 중국 시노백 백신 300만회분을 추가로 북한에 배정하였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도입에도 소극적이었던 북한이 백신 효능 논란이 있는 중국 백신을 받아드릴지는 물음표이다.¹¹ 코백스와 같은 국제 프로그램이 아닌 국가 자체 구매의 경우 막대한 비용과 공급 부족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과 남북 의료 협력, 그리고 중국

북한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백신을 접종하는 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북한은 어떻게 이에 대응할까? 일단 현재까지의 북한 정부의 태도를 바탕으로 유추해 본다면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방역을 지속하면서 현상유지를 위해 애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사태 장기화로 인해 정치, 경제적 부담이 과다해진다면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어 적극적으로 백신 수급과 접종을 위한 노력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백신 도입에 상당히 까다로운 태도

를 보이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중국 백신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코백스 등이 요구하는 상세한 모니터링이나 국제요원 상주 등을 거부하고 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해당 백신이 요구하는 수준의 콜드체인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백신 지원의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고, 코백스에 화이자 백신 5억 회분 기부를 밝히면서 지원 국가 목록에 북한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백신 지원을 빌미로 핵 문제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내정 간섭 시도가 있지 않을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코백스의 백신 모니터링도 내정 간섭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¹²

북한이 원하는 대로 적절한 성능과 함께 내정간섭의 우려가 적은, 또 백신 보관 및 운송에 기술적으로도 무리가 없는 대안으로 최근 부각되는 백신은 러시아산 백신이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은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신뢰도에 의문이 있었지만 국제 의학 학술지 랜싯에 게재된 임상 3상 결과 논문을 통해 2만 여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91.6%의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켰다. 또한 동결 건조된 상태로 는 영상 2~8도에서 보관과 운반이 가능해 비

8 하윤아, “軍, 군량미 부족에 외부서 쌀 들여왔다…김정은은 긴급 ‘중대사건’?” 데일리 NK, 21.07.01. <<https://www.dailynk.com/軍-군량미-부족에-외부서-쌀-들여왔다김정은-언급>>

9 “세계 코로나 백신 접종 50억회 돌파…북한은 시작도 안해”, 연합뉴스TV, 21.08.25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825011400038>>

10 조은정, “북한, 코백스 백신 요청했지만 구호요원 방북 거부…지원 늦어져”, VOA, 2021.07.03.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north-korea-shows-no-vaccine-urgency>>

11 이제훈, “중국 백신 못 믿고 AZ는 거부…북한, 코백스에 ‘다른 백신 달라’, 한겨레, 21.07.09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n-fense/1002905.html>>

12 “북한, ‘내정 간섭’ 미국 비난…백신은 미국산 원해”, BBC 코리아, 21.07.13 <<https://www.bbc.com/korean/news-57816656>>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

교적 취급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가격도 두 번 접종에 20달러(한화 약 2만2380원)로 다른 서구 국가의 백신(화이자 백신의 경우 1회 19.5달러, 모더나 백신의 경우 1회 15~25달러)보다 저렴한 편이다.¹³ 실제로 북한은 러시아제 백신 도입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무상 공여를 바라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입장 차이로 도입이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백신을 매개로 한 남북 협력도 의외로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한국은 백신의 위탁 생산을 담당하는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의약품 전문 생산 사업) 업체들이 많다. 미국의 노바백스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생산하며,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의 경우 국내 CMO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격 생산을 앞두고 있다. 비록 계약에 따라 생산 물량 대부

분을 일부 국내 도입 분을 제외하면 해외로 보내야 하지만 유사시 필요한 백신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은 구축되어있는 셈이다. 또한 오랜 기간 여러 NGO들이 의료 관련 대북 사업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전에 비해 적은 시행착오로 효과적인 의료 협력을 기대해볼 수 있다. 물론 단기적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최근 한미연합훈련 관련 북한의 반발과 남북연락선 복원과 재단절의 해프닝에서 보듯 북한은 여전히 남측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남한도 국내 백신 접종에 집중하고 있어 당장의 여력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북한이 방역을 더 이어가는데 큰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남한이 충분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지원 여력을 갖추게 된다면 교류 협력의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북한이 미국이나 남한의 지원 및 교류협력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대안으로 떠오르는 국가는 중국이다. 현재는 북한이 중국 백신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중국 백신으로 접종을 진행할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다. 다만 북한 당국이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경계한다는 분석이 있다.¹⁴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라면 중국의 지원을 받는 것도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방안일 것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기도가 필요할 때

북한이 어떠한 행보를 보이든지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남북 교류협력을 생각해보면 어렵게 협력의 문이 열린다 해도 근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이 없다면 일회적인 사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남북 간의 의료 협력이 북핵 대화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라지만 북한의 반발이 심할 것이기에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반대로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이 더욱 심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북한이 전혀 예상치 못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과 전망에 앞서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즉 북녘의 영혼에 대한 관심과 기도, 그리고 기회가 허락한다면 그들에게 영적, 육적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의 대상이다. 어떤 이들은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거나 거부감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비록 현 북한 정권이 신뢰할 수 없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보통 사람들에 대한, 북녘의 영혼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마저 빼놓아지면 안 될 것이다. 백신의 경우 접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오용될 여지도 적은 만큼 긍정적 관점에

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남북 의료 협력이 성사된다면 한국 교회에도 북한 주민들과 접촉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간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의료 NGO들이 대북 사업을 전개했고, 그 중 해외를 근거지로 둔 단체들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도 사업을 이어왔다. 문이 열리고 의료 NGO들을 중심으로 대북 사업이 재개된다면 한국 교회에게는 다시금 현장에서 북한 주민들을 만나고 돕고 간접적으로나마 선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물론 북한이 중국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면 한국 교회도 조중 국경 사역이나 중국 교회와의 협력 등 그에 맞는 선교 방법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북녘의 영혼들에게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참으로 역사 앞에 무력한 인간의 한계를 다시금 느끼면서 동시에 선교도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뤄가심을 고백하게 된다. 금번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가 어떤 방향으로 북한의 행보와 남북관계에 작용하게 될지 아직은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귀히 사용하시리라 믿는다. 한국교회가 변화의 물결 속에서 민족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깨어 기도하자. 

13 정대환, "[이슈크래키] "정부 도입 검토"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타 백신과 다른 점은?", 이투데이, 21.02.08. <<https://www.etoday.co.kr/news/view/1993014>>

14 박수영, "돈주 영향력·중국 의존도 낮추려다 멈춘 북한", 자유아시아방송, 2021.07.30.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nkchinarel-tion-07302021141258.html>

코로나와의 공존(with corona)으로 가기까지 북한이 거쳐야 할 길

오픈도어 현장사역자

지금 세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를 넘어 코로나와 공존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발전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는 보건의료를 넘어서 경제, 정치, 문화,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모든 분야에 있어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하여도 수많은 코로나 관련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그 중에는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시행된 전격적 국경봉쇄와 방역 활동에 대한 뉴스, 또 확진자 0명을 주장하는 북한과 이에 상반되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코로나 발생 정황 등에 대한 소식 등이 있었다. 이와 별개로 서해상에서 있었던 공무원피살, 해엄쳐서 재입북한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 등 코로나와 별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들을 코로나와 연관 지어 크게 이슈화 했다. 지금 현재 이 세계의 대부분의 뉴스가 코로나를 빼고 설명할 수 없듯,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코로나의 영향이 미

치지 않는 뉴스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최근 영국과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코로나와 공존의 실험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백신접종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나라들이 싱가포르와 영국의 뒤를 따르려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코로나 환자 0명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백신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북한은 코로나와 공존으로 나가는 이 움직임의 맨 뒷줄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봉쇄-통제의 장기화, 즉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를 의미한다. 이에 본고는 북한의 보건의료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방역의 장기화가 북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고자한다.

북한의 의료역량

사회 모든 구성원에 대한 12년 의무 교육



〈북한 평스약국 (데일리팜/평스제약합영회사 홈페이지)〉

과 무상진료는 북한정권이 사회주의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자랑해온 대표적인 제도이다. 과거 북한정권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여 북한의 대다수 주민이 의무교육과 무상진료 시스템의 혜택 속에 살던 시절이 있었다. 특히 인구 천 명당 의사 수에 있어서 북한은 의료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 현재까지도 수치적으로는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3.3명으로 이는 아시아 평균(1.3명)은 물론 남한(2명), 일본(2명)을 뛰어넘는다. 또한 의대 혹은 약대 졸업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시험과 연구성과 평가를 통해 승급하는 의사와 약사의 재교육 시스템, 의사담당구역제의 시스템이 확립되어있다. 북한 의료진의 수준도 결코 낮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의료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서울대 신희영 교수에 의하면 “평양의대 교육은 결코 떨어지지 않

며 이미 평의대 학생들의 수준은 엑셀런트 한 부분에 대한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조사와 실험을 통해)청진의대도 역시 똑같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사회주의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무상의료제도는 이미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유명무실해졌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담배, 술과 같은 물건을 바치거나 혹은 식사를 대접하거나 아니면 아예 돈을 지불해야한다. 돈이 없는 경우 의사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해주는 조건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¹ 과거 어린이와 아이들을 위한 의약품 만들기 위해 2007년 평양에 개원한 SAM 평양제약공장약품공장²을 비롯하여 남한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원료의약품 지원과 기술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0년 전후로는 최소 8개 공장에서 22개 이상의 약품을 생산하였으나³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감소한 이후로는 약품공장의 소식을 알 수 없다. 2000년대 중반 아스피린(일명 평스피린)으로 북한 내에서 널리 알려진 제약회

1 이재관, 김성배,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중 무상의료시스템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Vol. 15(2), (2020), p.84.

2 박세록, 『나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서울: 두란노, 2021), p281.

3 김진숙, 『평화의 아이들』 (서울: 북루멘스, 2018), p61.

사로 평스제약합영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북한과 스위스 사업자가 합작하여 설립된 회사로 북한의 제약회사 중 유일하게 해외 GMP 인증⁴을 받은 제약회사이다. 그러나 평스제약 또한 2017년 이후 정상적으로 공장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의료지원이 가장 활발하고 평스제약회사가 한창 확장하던 시기였던 2008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 필요한 의약품의 60-65%를 유니세프가 담당하고 있으며 35-40%를 국제적십자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약품 지원이 아닌 원료 의약품 공급을 포함한 수치이다. 이렇듯 외부지원에 의존도가 높은 북한의 의약품 생산은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북한의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공적 인프라를 사적 인프라가 대체하는 현상이다. 과거 필자가 현장에서 양육한 북한 주민 중 한 자매는 의료와 관련된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자매였다. 그 자매가 중국을 방문하여 조선족 출판사가 발행한 민간요법과 전통요법에 대한 책을 두권 얻었는데 북

한에 돌아가 그 책을 기반으로 의료 활동을 하여 큰돈을 벌고 있었다. 의약품은 중국 방문 북한주민들이 귀국시 사가는 필수 품목이다. 그 이유는 의약품은 부피가 작고 부가가치가 높으며 무엇보다 북한 내부 수요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단동, 연길 등 조중 국경 거점도시들에는 중국을 방문한 북한주민들이 애용하는 약국과 도매상들이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약은 단연 정통편과 비타민이다. 이중 정통편(正痛片)은 천진(天津)의 한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아스피린, 파라세타몰(타이레놀), 카페인으로 구성된 제품이다. 그러나 접경지역 시장에서 파는 정통편은 천진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그 정통편이 아니다. 이 약품은 정통편이라는 글씨가 조악하게 인쇄된 투명한 비닐에 수천 알씩 포장되어 판매되며 성분도, 설명서도 없다. 이 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효과가 좋아 한간에 아편 성분이 함유되었다는 소문이 있을 뿐 인터넷에 공개된 어떤 정보도 없는 약품이다. 이 약이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데 북한의 일부지역 주민들에게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북한은 시장에서 의약품이 유통되면서 약의 투약과 복용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 없이 처방된 약을 임의로 구입하기 때문에 주로 증상 개선 효과가 빠른 약들이 선호되고 약의 원료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의 보건의료상황은 주로 UN, WHO를 비롯한 국제기관들에 의해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이 2017년 2월에 발행한 『기억해야 할 잊혀진 위기지역 12곳』에 따르면, 전체 북한인구의 25%가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가운데 영유아를 포함한 170만 명의 어린이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방역역량

현재 코로나에 대응하는 각국의 대처를 통해 알 수 있듯 전염병관리는 사회의 역량이 총 집결되는 영역이다. 현대 방역의 성패에 있어서 사회 시스템과 사회 전반의 현대화, 전산화 수준을 비롯한 인프라가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북한이 취약한 부분이다. 게다가 의약품과 장비의 부족은 북한에게 있어 전염병은 더욱 큰 위협으로 만든다.

94년 10월 함흥에서 시작하여 전국을 강타한 콜레라, 95년 봄 장티푸스(typhoid fever)와 파라티푸스(paratyphoid fever)모두 전국을 강타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홍역과 성홍열등의 전염병의 건강보균자, 병후보균자들이 늘 공존하는 사회이다. 몇 년 전에는 심지어 옴(Scabies)이 전국적으로 확산한 적이 있다. 수많은 전염병에 대해 예방접종을 통하여 집단면역이 형성된

남한과 다르게 북한은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질병들이 많으며 위생 상태와 의료 환경이 열악하여 전염병에 매우 취약한 사회이다. 이는 백신 자체가 희귀한 이유도 있지만 신희영 교수가 오래전에 지적했듯 “북한은 백신을 공급해 줘도 보관할 냉장고가 부족하고 전기도 없어 ‘땀물 백신’이 되기 십상”인 상황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⁵ 북한은 전염병 예방관리와 관련하여서도 국제지구에서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점은 2018년 11월 17일 11년 만에 재개된 보건 의료협력회담에서 전염병 공동대응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게는 의료 인프라 부족, 보건의료물품에 대한 지나친 해외의존, 열악한 위생 상태와 영양 상태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것은 전체주의국가로서 철저한 사회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월 스미스 주연의 영화 “윌드윅 Z”는 전 세계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전 세계인이 좀비가 된 상황을 그린다. 영화에서 유일하게 두 나라 이스라엘과 북한이 바이러스 청정국으로 그려지는데 이스라엘은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통하여 좀비바이러스를 막은 반면 북한은 모든 주민의 모든 치아를 발치하여 좀비에 물려 감염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물어서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시킬 가능성을 원천

4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란 우수한 의약품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각 국가의 규제기관 및 국제기구는 자체적으로 GMP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GMP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는 것은 미국 FDA의 규정으로 cGMP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로 불리는데 당시 평스가 인증받은 기관은 프랑스의 기관으로 알려졌다.

5 조선일보, 2014년 8월 16일



〈버스를 소독하는 방역요원들 (조선중앙통신/VOA)〉

차단하여 좀비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은 모습으로 그려진다. 위의 이야기는 극단적이고 우스운 가공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국가재난 상황 시 극단적 전체주의 국가가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의 효과를 매우 잘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 확진자 0명을 주장하지만 정황상 신뢰하기 어렵다.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은 다수의 의심증상자를 격리하고 강력한 이동통제를 실시해왔다. 앞서 언급한 열악한 전염병 예방 환경을 고려하면 의심증상자 중에 얼마나 실제로 코로나 감염자였는지, 또 방역 감시망 밖의 환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그러면서 작년 4월 최고인민회의, 7월 노병대회, 10월 당창건행사등 당시 다른 국가들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대규모 행사를 평양에서 진행하였다. 방역과 관련하여 모든 면이 열악한 북한의 정권이 수도 평양에서 코로나에 취약한 노년층이 결집하는 모임을 포함하여 대규모 행사를 실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강력한 사회통제시스템이 있다. 즉 선별적인 방역이 아닌 무조건적인 통제

와 격리를 통한 방역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의 확산은 막아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방역을 명목으로 한 과도한 통제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코로나 극복 북한의 길

위에서 살펴보았듯 북한은 공적의료 인프라가 붕괴하였으며 시장이 이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품 부족과 주민들의 열악한 영양상태를 감안할 때, 북한에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시 발생할 혼란은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더 큰 충격과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북한의 코로나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년 반 동안 발표된 논문 중 자주 인용되고 있는 논문 중 하나는 KDI 이석 연구원의 “2020년 북한경제, 1994년의 대자뱀인가”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올해의 코로나 사태로 세계에서 가장 피해를 크게 입은 경제권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경제이다. 물론 이것이 북한에 코로나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 당국의 주장처럼 북한에서 코로나는 성공적으로 억제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만, 이를 위해 북한이 사용하는 방식이 올해의 북한경제에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자영업자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코로나로 죽기 전에 방역지침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져 죽겠다”는 말이 회자된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방역이 국가경제와 개인의 삶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다. 국가경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 같은 강도의 방역이라도 북한의 경제가 받을 타격은 한국이 받는 타격에 비해 훨씬 심각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코로나에 대처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로 북한의 보건의료분야는 외부지원에 의존도가 높은 분야인데, 코로나19는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으로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기나라 챙기기도 바쁜 상황이다. 둘째로, 북한의 정치적 이유이다. 북한정권은 코백스(COVAX)의 백신지원과 중국의 백신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코백스가 지원하고자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와 중국의 시노팜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이유로 대두되고 있지만, 백신 지원시 조건으로 제시될 코백스와 미국정부의 모니터링 요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전략적 판단의 종합적 고려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올 7월 초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지원 가능성에 대한 미국 인사들의 언급이 여

러 언론들을 통해 보도된 후 북한 외무성은 7월 11일 "코로나19 사태 속에 인도지원이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며 대미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미국이 인도주의 지원을 거론할 때마다 등장하는 인권 지적은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며,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다른 나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백신을 지원하며 진행될 모니터링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 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중국 측의 백신지원제안에 대한 거부도 대중-대미관계의 여러 역학관계 속에서 내린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이 백신을 지원받는 것을 단순히 보건의료 차원에서만이 아닌 오히려 국제 역학관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BBC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백신 분배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구하면 북한은 지원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특히 "노동신문을 보면 백신을 들여오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⁶

우리의 기도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 내부에서 지금

6 “북한, '내정 간섭' 미국 비난…백신은 미국산 원해,” BBC Korea, 2021년 7월 13일.

코로나19 사태가 북한에 미친 영향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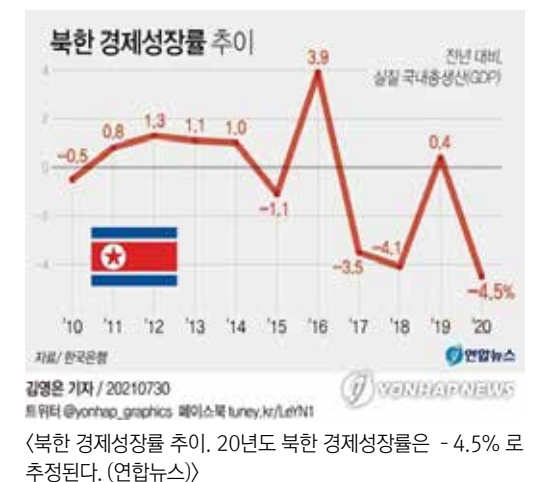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1. 북한의 경제 상황

2016년 북한경제는 무역 증대 등 긍정적 요인으로 인해 플러스 3.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UN 경제제재로 2017년과 2018년에는 -3.5%, -4.1%의 성장률을 각각 달성했다. 북한은 2019년에는 중국의 지원 등으로 현상 유지 수준의 미약한 0.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경제제재, 자연재해의 삼중고(triple distress)를 겪으면서, 북한 산업 전반이 생산량 감소 겪어, -4.5%이라는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농림어업 부문의 생산량은 7.6%, 광업 생산량은 9.6%씩 각각 감소했다. 북한의 식량 생산 부족과 주요 외화 수입원이었던 광업의 생산량 감소는 북한의 외환 수급에도 큰 타격을 가했다. 북한의 경제 수준을 한국과 비교해보면 북한의 명목 GNI(국민총소득)는 한국의 1.8%, 1인당 GNI는 한국

의 3.7%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외경제 부문을 보면, 2020년 북중 무역총액은 전년 대비 80.7% 감소한 약 5억3천905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해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4천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7.7% 감소했고, 대중국 수입액은 약 4억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0억 달러가 감소한 -80.9%를 기록했다. 이런 결과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까지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북한의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지금상황에서 심각한 집단감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북한에 집단감염 발생시 사회에 매우 큰 혼란을 초래될 것이며 이는 정권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북한정권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에 대한 강력한 방역은 사회전반에 많은 부담을 준다. 국경이 통제되고 왕래가 단절되어 무역이 위축되고 경제 역시 위축되며 이는 주민들의 삶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방역은 사회복지시스템이 갖추어진 남한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북한이 받을 충격은 남한에 비해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무너진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정권은 자신들이 가진 자원보다 훨씬 큰 존재감을 발휘해오고 있다. 이것은 북한정권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국내부적 역량을 총 동원할 수 있는 전체주의 혹은 전체주의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각 국가들은 백신수급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는 백신이 코로나 종식에 견인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코로나 백신지원문제 역시 순수하게 보건의료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국제관계의 줄타기의 도구로 접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교적 성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 종식은 점점 늦춰지게 된다. 정권의 생존을 위해 주민의 이익이 희생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정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저개발국가에 대한 백신지원문제는 철저히 인권 가치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모든 교류와 지원에는 정치적 부산물이 따른다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국제관계의 현실이다. 북한과 관계를 맺고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려는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백신지원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에 백신이 도입되던 초기부터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백신지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국내 백신상황, 북한의 태도 등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언젠가 북한에도 백신이 공급될 것인데 백신의 지원이 북한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북한으로의 백신지원에 있어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 때 정책 결정자들이 진정으로 북한주민과 남북통일을 위한 길이 어떤 길인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

북중 국경봉쇄에 기인한다. 북중 간의 공식 무역 외에도 밀무역과 상호 방문을 통한 경제 교류마저 중단되면서 북중 무역은 최악을 기록했다. 북중 경제 교류의 전반적인 감소로 북한의 당, 기업소, 일반 주민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거의 중국에 종속된 북한 경제로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국가기업소의 경우 수입금지에 따른 원자재, 중간재의 부족으로 생산과 수출이 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자국 내 판매도 감소하여 많은 기업소의 운영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2021년 현재에도 북한은 심각한 COVID-19의 피해를 받고 있다. 2020년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식량난과 국가기업소의 큰 폭의 생산량 감소이다. 국경봉쇄로 공식적인 북중 무역과 밀무역의 규모도 급격히 줄어들어, 북한의 경제난은 가중되고 있다. 소수의 당 중앙 고위 간부를 제외한 대부분 경제 간부들의 생활 수준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화벌이와 부정부패에 관여하지 않는 일반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대폭 낮아졌다. 경제 간부들의 부패행위는 지속되고 있고, 간부들과 일반 주민들과의 상호 신뢰와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었다. 국경봉쇄에 기인한 시장 활동의 제약으로 무역 관련 종사자들과 시장 관련자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증가하였다. 일부 충성계층의 불만도 증가한다는 보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초 제 8차 노동당 대회 개회사에서 지난 국가경제발전 5개년 목표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경제실패를 인정했다〉

나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고 북중 무역이 정상화된다면 북한에서의 시장 영향력은 다시 복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코로나19 위기와 북한의 대응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가 발현하기 시작한 2020년, 김정은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기관 본위주의는 국가 경제의 전일성 보장에서 암과 같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면서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이 제멋대로 국가적으로 맞물려 놓은 계획지표들을 뜯어고치거나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협동생산품도 보장하지 않는다 면 국가 경제 전반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경제난의 책임을 국가를 운영하는 기관과 간부들에게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하루살이식 투자를 없애고, 모든 사업을 국가의 이익에 절대복종시키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 그 후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착오적인 대응

책이 강요되었다. 이미 경제제재로 취약해진 북한 체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외생적 압박을 감당할 자생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관련하여 김정은은 북한의 경제난을 자국 경제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간부들의 사상적 해이와 무책임, 외부 세력의 압박 때문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김정은은 2020년 8월의 당 전원회의와 11월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경제 간부들의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비판했고, 8월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혹독한 대내외정세 지속으로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된 국가 경제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 되고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라면서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김정은은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제8차 당대회에서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처음으로 경제실패를 인정했다.

일본의 아시아프레스가 2021년 1월 보도한 북한의 문서는 명확하게 김정은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일부 일군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이 미진 된 주요 원인을 적들의 제재와 자금 부족으로 보는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를 작성할 때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해보고 작성하여야 했겠는데 주관적 욕망에 사로잡혀 잘 따져보지 않고 작성하다 보니... 우리가 혁명과 건설을 달이나 화성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는 것만큼 우리가 처한 객관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목표도 설정하고 계획도 세워

야 합니다.”¹ 여기서 김정은은 간부들의 국가지원 의존과 계획수립과정에서의 무능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권한이 제한된 간부들의 사업계획 수립은 달성 불가능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북한경제의 상황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경제사업 체계를 수정하는 업무계획은 부재하다. 경제난이 심해질수록 시장을 더욱 활용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북한이 시장을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부분적으로 작동하기를 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경제가 시장을 활용하여 계획경제의 약점을 보완해왔다. 특히, 서비스업에서의 시장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북한처럼 비효율적인 경제에서 시장의 확산은 상당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부는 시장의 확산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낮추게 되어 궁극적으로 독재체제 유지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믿고 있어, 시장을 항상 완벽하게 통제하려 한다.

3. 한국의 대북 지원 가능성

2019년 하노이에서 북미회담이 개최될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 관련 지역 사찰을 허용하고, 추후 부분적인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시행

1 이시마루 지로, “긴급전문 공개-북한의 절대 비밀문서: 제 8차 당대회와 신경제계획에 대한 김정은의 솔직한 발언,” p.10, 2021년 1월 4일.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1/01/nk-economys/bunsyo-2/>

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 사찰 지역 공개를 거부하면서 회담은 결렬되었고 그 후유증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민의 대북 감정은 급속히 악화하였다. 따라서, 한국이 코로나 사태로 고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우선은 북한의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태도 때문이다. 김정은은 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이 행성에 우리나라처럼 항시적인 전쟁 위협을 받는 나라는 없으며 그만큼 평화에 대한 우리 인민의 갈망은 강렬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비축하고 강화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이며 영원히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놓기 위해서이다”라고 핵무기 보유의 당위성을 강하고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희망 사항일 뿐이다.

2021년 7월 KBS가 실시한 국민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민의 북한 정권에 대한 반감은 71.4%로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북

한에 대한 매우 반감도 38.8%로 2019년 26.3%에 비해 매우 높게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대도 53.1%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했던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도 응답자의 67%가 국내 집단면역이 이뤄진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지원에 대한 반대 응답도 19.1%를 기록했다. 결국, 북한에서 비핵화가 달성되지 않거나,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및 해외투자, 남북한 교류 협력 등은 거의 달성 불가능하게 된다. 한국의 일부 기독교 단체도 대북 지원에 높은 열정과 관심이 있지만, 적어도 코로나19 상황이 통제가 가능한 안정적 상태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실행이 구체화되기 어렵다.

4. 전망

현재 경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매우 제한적이다. 북한의 현실은 국가 예산 수입 감소에 따른 자원 부족,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 이익금 감소로 인한 국가

예산 수입 감소로 큰 폭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현 북한 지도부는 현재의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을 통해 주민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계기로 간주하는 듯하다. 우선 시장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소 생산 감소, 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식량과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은 강력한 국가 개입을 뜻한다. 아마도 북한 당국이 강력한 대민 통제와 강력한 화폐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반증일 수도 있다. 문제는 현재의 코로나 사태가 수년간 더 장기화할 경우, 자원 고갈과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북한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대외 경제협력과 비핵화를 통한 코로나19 사태 극복은 북한 권력의 근본적 문제로 인해 시행이 어려울 것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을 당장 반전시킬 수 있는 묘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보면 실패한 개혁정책보다는 개방정책이 비교적 신속하게 경제적 이득을 북한에 제공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개방정책은 코로나 사태만 종식되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은 계획과 시행 모두가 상당한 준비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까지 견지해 온 주체사상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도 있고 국가 정책 전반에 큰 도전 요인으로 작동할 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체제전환 이전인 1970년대만 하더라도 동유럽 국가들은 암묵적으로 국가가 계획한 생산량 완수보다는 이윤추구와 같은 개혁 마인드를 더 중시하였다. 이 국가들은 경직된 정치적 제약 때문에 개혁

이라는 용어 대신 사회주의 경제의 심화 발전 또는 완성과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만약 북한이 단기적으로 북중 무역 규모 확대와 관광을 포함한 인적교류 증가를 시행하고, 중국 자본의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인다면 자국 경제를 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개방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한다면 단시간에 높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더 나아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후 남북한 간에 다양한 경제 및 문화 협력 사업이 진행된다면 북한의 경제 도약은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문제는 이런 부분적 개방이 몇 차례 시도되었지만, 북한의 독재정권이 안고 있는 자체 모순으로 실패하였다. 지금 북한에 필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경제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 변환 과정이 늦춰질수록 북한경제는 또 다른 유형의 경제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



〈2021 KBS에서 일반 국민 천6백여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통일의식 조사. 근래 북한 정권에 대한 높은 반감과 코로나 백신 지원 관련 여론 등을 확인할 수 있다.(KBS)〉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과 이후의 전망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코로나 사태가 2년째 지속되고 있다. 거기에다 각종 델타 변이 등 각종 변이바이러스의 등장에 따라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철저한 국경봉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북한의 열악한 의료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미 많은 인명피해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 국경봉쇄로 북중간 무역도 급감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산업 전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른 바 3중고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마저 거절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대화 제의를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는 의료여건이 열악한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제난 등 북한 내부는 물론, 대외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국이다. 김정은 총비서(이하 김정은)는 최근 “지금의 상황을 “중대사태”로 규정하면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강조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 장기화가 북한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한 후,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를 전망해 보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국경봉쇄 장기화, 경제난 가중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초 북한은 즉각 중국과의 국경봉쇄라는 초강수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과의 우의(友誼)를 생각하면 예상 밖의 일이다. 하지만 의료여건이 열악한 북한으로서 어찌면 당연한 조치일 수 있다. 이후 국경봉쇄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영향은 역시 경제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국경봉쇄 이후 북중 무역이 대폭 감소하였고, 급기야 2020년 4/4분기부터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입이 중단된 바 있다. 이를 통계수치로 보면 대중 수입은 4억4,31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0.9% 감소했고, 대중 수출도 전년 대비 77.7% 감소했다. 지난해 3/4분기까지 북중 무역은 주로 식료품과 의약품 등 민생용품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대중국 수출입의 감소는 원부자재와 소비재 공급 감소로 이어져 산업생산의 둔화 및 북한 주민의 후생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 대두유, 밀가루, 당류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주민들의 후생이 악화되었고, 전력과 광업 부문도 생산설비와 원부자재 수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산량이 감소되었다. 최근 북한은 화학과 금속 부문을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해당 분야의 수입 감소로 산업생산용 원료(플라스틱이나 합성수지)와 민생용품(의료용 자재, 세제, 접착제, 농업용 자재 등)의 내수시장 공급이 줄어들면서 연관부문(경공업)에 대한 악영향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¹ 이는 북한 경제의 일부 측면을 진단한 것이지만, 경제 성장률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제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직접 서명한 '특별명령서'를 들어올리고 있다.〉

타났다. 대기근으로 찾아온 고난의 행군 시절 즉, 지난 1997년 6.5% 역성장 이후 23년 만에 최악의 경제성적표라 할 수 있다.²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 7.6%, 광공업이 - 5.9%, 서비스업이 - 4.0%였다. 북한의 경제난은 김정은이 8차 당대회 당시 5개년계획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는 점과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함을 강조한 데서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식량분야에서 더욱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15일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지난해 태풍피해로 알곡 생산계획이 미달한 것으로 하여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난관)해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김정은의 특별명령서를 발령한 바도 있다.³

물론, 북한의 경제난은 코로나19만이 원인

2 <https://www.news1.kr/articles/?4388737> 검색일 : 2012. 8.17.

1 오세경, “2020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 코로나 19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1. 3. 3. 2쪽 참조

3 <https://news.joins.com/article/24086460> 검색일 : 2021. 8.17.

은 아니다. 보다 구조적인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 핵·미사일 개발과정에서 군사력 분야에 재정을 쏟아 부었고 민생은 외면했다. 이에 유엔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는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해마다 입는 자연재해는 산림, 수리 등 기반시설의 취약에 근본 원인이 있다. 사실상 김정은 집권 이래 일인 독재를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했고 독재자 권력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킨 또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코로나 방역을 구실, 내부통제 도구로 활용

북한 당국이 주변국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성공적인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안광일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대사는 이달 6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 측 대표로 참석, “공화국(북한)은 자력으로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경제회복과 인민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남, 동아시아 사무소가 같은 날 발간한 올 30주차 코로나 19 주간상황보고서를 보면 북한 보건성은 지난달 29일까지 총 3만5,254명의 주

민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음성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열악한 위생 및 의료여건을 고려할 때 이제껏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 북한 당국은 중국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던 작년 1월말 ‘비상방역’에 돌입해 북중 접경지를 통한 주민 왕래와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항공편 및 국제열차를 중단했다. 이를 계기로 평양에 주재하던 각국 외교관과 WHO 등 국제기구, 국제구호단체 직원들도 대부분 현지를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30일 노동당 제8기 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은 책임 간부들이 비상방역 사업 태만에 대해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사건이 발생했다”며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총참모장이 문책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김정은이 식량관련 특별명령을 통해 군량미를 풀라고 했는데 별다른 효과가 나오지 않자 그 책임을 물었다는 추정들이 이어졌다. 특별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각 지역 군부대에서 군량미를 풀어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전시 예비물자인 ‘2호미’를 풀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



〈피랍탈북인권연대에서 공개한 북한 공안기관 관계자 교육자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문(왼쪽) 함께 시작하는 이 영상은 한국식 웨딩 영상을 찍은 신혼부부를 '혁명의 원수'로 규정하며 재판에 넘기는 내용(오른쪽)이 포함되어 있다. (BBC코리아)〉

으로 전해졌다.⁴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는 북한 경제난 등 여러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은 정권에게는 주민들과 당 간부들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과 명분이 되기도 한다. 국경봉쇄는 탈북자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왔다. 통일부는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이 모두 22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1,047명보다 5분의 1로 감소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로 북중국경이 통제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북중간 무역 중단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됨으로써 북한 정권으로서는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셈이다. 김정은 정권은 한국문화와 정보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말투까지 흉내 내자 북한 체제가 흔들릴 것을 우려해 한류의 유포를 반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개

재판, 추방은 물론 군 입대와 진학 등에서도 제외하는 등 한국 드라마와 영화 시청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의 핵무장 정당화, 고난의 원인을 외부로 책임 전가

지금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근본 원인은 최고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노선에서 비롯된 것이다. 2012년 4월 15일 김정은은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 육성연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불러왔고, 거기에서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2018년 이후 김정은이 조건부 비핵화 명분으로 제재를 해제해 보려는 시도마저 실패했다. 이후 정면돌파전을 독려하며 주민들을 더

4 <https://www.nocutnews.co.kr/news/5585020> 검색일: 2021. 8.17.

욱 옥죄이고 있다. 지난 7월 27일 북한은 남북 통신선을 복원했다. 그리고 이 조치가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양 정상이 합의한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통신선 복원 사실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8월 1일 김여정이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을 요구했고 8월 10일 예비연습이 시작되자 통신선을 다시금 차단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보는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북침을 위한 핵전쟁을 연습을 감행한다고 강력 비방했다. 그러면서金正은의 핵·미사일 개발은 침략으로부터 나라(북한)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매우 탁월한 조치임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대남, 대미 적개심을 자극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은 지도자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 위협요인이니 지도자를 중심으로 더욱 뭉치자는 선전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되는 것이 아닌가 했던 기대도 물거품이 된 상황이다.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 가운데서도 외부의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코로나 19 때문으로 주장하지만 외부 도움 없이도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판단된다.

단기간 내 상황 호전 기대 난망, 긴장 고조 가능성 대비 필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북한 정권에게

위협도 되지만 동시에 내부통제와 결속을 위한 기회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단기간 내 북한이 문을 열고 대화나 교류의 길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지난 5월 종료된 이후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의 선포기를 요구하면서 호응하지 않고 있다.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코로나 방역 등 보건협력을 기대했던 우리 정부도 난감하게 되었다. 사실 대화 재개를 장애하는 요인으로 코로나19가 작용할 수도 있다. 김여정은 지난 8월 10일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연습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도 11일 안보위험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거들었다. 그렇다면 북한은 자신들의 말을 입증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내부적인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코로나19는 새로운 변이종의 출현으로 팬데믹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독감바이러스처럼 장기간 인류와 함께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그나마 희망은 백신접종인데 국제사회의 백신 공급 상황도 매우 어렵다. 북한에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전 주민이 접종을 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金正은의 올바른 현실 인식과 핵 포기 결단만이 지금의 어려움을

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교회의 기도 제목 :金正은의 올바른 현실 인식, 무분별한 도발 중단, 대화 재개

첫째,金正은이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핵을 내려놓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북한 정권이 무분별한 도발을 통해 내부 위기를 외부로 책임을 돌리려 하는 행태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올해 초金正은은 전술핵과 핵잠수함 개발을 공언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 셋째, 북한은 그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 남북정상이 합의한 4.27/9.19 선언과 미북정상이 합의한 6.12 싱가포르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이 재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제목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 ☺

현 장 르 포

2021년 북·중 국경의 현주소

노 정 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 Asia, RFA) 기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북·중 국경

북·중 국경의 대표적 도시인 중국 단둥시.

지난 8월 말, 이곳에서 활동하는 대북 무역업자에게 전해 들은 최근 상황은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였다.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국경을 걸어 잠근 지 1년 8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좀처럼 봉쇄조치가 완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북·중 국경이 봉쇄된 이후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는 이 무역업자는 단둥을 떠나 중국 내 인근 지역에서 계속 국경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언제 국경이 다시 열릴지 알 수 없다’는 대답뿐이다. 최근까지 살펴본 단둥시 세관과 주변 거리는 한낫임에도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지 않거나 대부분 상점도 문을 닫는 등 썰렁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올해 1월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중 국경이 봉쇄된 이후 북한과 교역으로 먹고 살았던 중국 무역업자나 상인들 사이에서 휴업이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물자는 물론 사람의 교류까지 끊기다 보니 중국 내 대북 사업가들이 사업을 완전히 접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무역업

자는 2년 가까이 창고 보관비를 내지 못해 물건을 그냥 버려야 할 정도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다. 늘 손님이 북적였던 단둥시의 북한 식당은 찾는 손님이 없어 매출이 뚝 떨어졌고,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주재원들도 할 일이 없어 매일 학습과 회의로 시간을 때우는 실정이다.

북한 쪽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함경북도와 양강도, 평안북도 등에서 일부 무역회사에 “중국과 무역 재개를 준비하라”는 당국의 지시가 있었지만, 8월 현재까지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올 연말까지도 북·중 국경은 굳게 닫혀 있을 거란 관측이 많다. 북한 내부소식을 전하는 일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연료와 원자재가 들어오지 않아 대부분 공장이 멈춰선 지 오래다. 또 무역과 시장 활동의 부진으로 북한 주민의 현금 수입이 급감하면서 시장과 역전 등에는 노숙자가 늘고, 현금과 곡물이 바닥난 ‘절량세대’도 넘쳐나고 있다.

사실상 북한 경제를 이끌어왔던 북한의 ‘돈주’, 이른바 신흥부유층도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북·중 국경이 봉쇄된 이후 보관해 놓은 물품들이 바닥나



〈올 1월 촬영된 단둥시 거리 모습. 북한을 상대로 영업하던 상점들 대부분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

고, 그동안 구축해놓은 정보망도 사라지면서 막막해진 상태다. 돈주들의 현금 수입이 급감하면서 생존을 위해 인건비와 외식비 등의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고용했던 사람들도 연이어 직장을 잃거나 현금 수입이 줄어들면서 연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부터 갑자기 폭등한 물가와 절반 가까이 급락한 중국 위안화·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 탓에 북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나타난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꼽힌다.

‘국경 열린다’는 추측·소문만 무성

지난 7월 초 중국 단둥시에는 소문 하나가 돌았다. ‘7월 15일부터 국경 봉쇄가 일부 해제될 예정인데, 각 세관에는 업무 준비에 관한 명령이 하달됐고, 물자 운송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었다. 하지만 소문에서 언급된 15일이 됐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4월에는 ‘북한 화물 열차가 운행을 개시하기로 했다’, ‘약 1천500개 컨테이너 분량의 중국 원조 물자가 나갈 것이다’라는 소문으로 단둥시가 들썩였지만, 말 그대로 소문에 그쳤다. 단둥시의 대북 무역업자는 “잊을 만하면 나왔다가 헛소문으로 끝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꼬집는다. 지난 7월 말에는 북한 평안북도 의주 비행장 인근에서 국제화물 검역 시

설의 재개 움직임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이를 두고 북·중 무역이 곧 재개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한 달 넘게 조용하다. 올해 초부터 북·중 국경이 조금씩 열릴 것이란 소문에 중국 사업가와 북한 무역업자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컸지만, 지금은 실망을 넘어 자포자기의 심정이다. 국경 봉쇄의 완화를 기다리던 중국 내 대북 무역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른 시일 내 무역 재개에 대한 기대를 접고, 다른 사업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많아졌다고 한다.

북·중 국경과 함께 단절된 연락·송금 수단

지난해 북·중 국경이 봉쇄된 이후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우선 북한 가족 간의 연락 수단이 뚝 끊겼다. 북한 당국이 통신 수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전화 통화가 어려워진 것이다. 탈북민과 북한 가족을 연결해주는 중간 브로커들이 많이 적발되고, 이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북한에 있는 가족과 전화 통화가 쉽지 않다는 탈북민들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북·중 국경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송금 수수료가 폭등한 것도 탈북민들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다. 최근 북한에 있는 어머니에게 돈을 보낸 한 탈북민은 송금액의 절반인 50%를 중간 수수료로 지불했다. 함경북도, 양강도, 평안북도 등 대부분 지역의 중간 수수료가 상향 평준화됐는데 40~50%가 평균으로, 심지어 60%

까지 요구하는 브로커도 있다고 한다. 북·중 국경이 봉쇄되기 전, 또 북한 당국이 탈북민들의 송금을 강력히 단속하기 전에는 비교적 저렴하고 빠르게 돈을 보낼 수 있었지만, 브로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 송금 수수료가 급격히 오른 것이다. 브로커들이 많이 적발되면서 경쟁상대가 줄었고, 그만큼 중간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또 국경 봉쇄로 북·중 간에 인적 교류까지 중단되면서 현금의 유통이 막힌 것도 수수료가 급등한 이유로 꼽힌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현금을 가져갈 수 없게 되자, 직접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북한 브로커들이 많이 사라졌고,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만 송금 대행을 독점하다 보니 수수료를 올리게 된 것이다.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탈북민들이 송금을 주춤하게 되고, 횡수도 줄면서 이에 의존해 오던 북한 주민들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북한 시장에서 중국 위안화에 대한 환율의 폭락이다. 8월 말 현재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국 위안화 당 북한 원화의 환율은 약 570원. 일 년 전 약 1천200원의 절반 수준인데, 중국 위안화를 북한 돈으로 바꾸면 이전의 절반밖에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최근 북한에서는 외화 사용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북한 돈 사용을 유도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탈북민이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면, 우선 중간 수수료로 절반을 떼이고, 북한에 있는 가족이 중국 위안화로 받은 돈을 다시 북한 돈으로 바꾸면 결국, 송금한 돈의 1/4 수준만 받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요즘처럼 북한 시장의 물가가 폭등한 상황에서 탈북민이 어렵게 모은 돈을 송금해도 북한에 있는 가족은 고작 몇 달을 버티기가 쉽

지 않다.

최대 60%까지 치솟은 대북 송금 수수료는 북·중 국경이 열리면 인적 왕래가 재개되면서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지만,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없어 탈북민이나 북한 가족들의 답답한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린다 해도 탈북민 송금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단속이 이어지면, 브로커들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송금 수수료는 계속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북·중 국경이 봉쇄된 이후 북한에 가족을 둔 탈북민들의 안타까움이 커지는 이유가 되고 있다.

북·중 국경 봉쇄 길어지는 두 가지 이유

김정은 정권이 북한 경제의 생명줄과 같았던 중국과 교역을 전면 중단하면서까지 북·중 국경을 오랫동안 봉쇄하는 이유는 뭘까. 미국과 한국 내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엄청난 공포를 가장 먼저 꼽는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북한에 아픈 상처를 남겼지만, 이제 면역이 생겨 북한 체제의 직접적인 붕괴 원인과 멀다고 할 수 있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서는 중국과 교류까지 끊을 정도로 큰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인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하고, 아직 북한 주민이 백신 접종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 번 방역이 풀리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국경 봉쇄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국경봉쇄를 일부 완화하려던 북한 당국의 결정이 번복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 조심스레 북·중 간 무역 재개를 준비하던 중 중국에서



〈올 7월 12일에 촬영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의 세관과 건너편 문 닫은 상점의 모습. 오후 2시였음에도 활기를 잃은 도시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자유 아시아 방송)〉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북한과 접경 지역인 요녕성(랴오닝성)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금은 국경을 열 때가 아니다’라는 방침으로 선회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북한에 가족이 있는 한 탈북민에 따르면 지난 7월,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큰 소동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배를 이용한 밀수 과정에서 감기에 걸린 선원이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화들짝 놀란 북한 당국이 방역 책임자를 해임하고 엄벌을 내릴 정도로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기 때문에 북한이 당분간 최고 수준의 방역 체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북·중 국경 봉쇄 장기화의 두 번째 이유는 ‘비사회주의 단속’과 ‘내부 기강잡기’다. 2019년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자력 강생을 내세운 김정은 정권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면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북·중 교류를 통해 유입된 한류와 외부 정보 등이 북한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큰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내세워 중국과 무역 거래와 인적 교류 등을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

지 않다.

한 예로 요즘 북한 시장에서 외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매우 엄격해지면서,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의 가치는 하락한 반면, 북한 원화에 대한 가치가 상승한 것도 북한 당국이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기 때문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임을출 한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과 교역을 더 할 수 있음에도 필수품 위주로만 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예방에 중점을 둔 측면도 있지만, 가능한 북한 내부적으로 물자를 수급하고 조달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눈앞에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보다 코로나19 방역대책이 뚫려 체제에 위협을 받는 상황을 피함과 동시에 자력 강생을 앞세운 시장 개입과 체제결속, 주민들의 사상·사회 통제 등을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경 봉쇄의 완화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북, 민생경제 한계에도 국경 개방 쉽지 않을 것

2년 가까운 북·중 국경 봉쇄의 장기화로 북한의 민생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가운데, 최근에는 수해까지 겹쳐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유로 시장 활동과 사회 통제까지 강화한 이후 북한의 민생경제를 이끌어 온 ‘무역’과 ‘시장경제’라는 두 개의 동력이 무너진 것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모아 놓은 돈과 재산을 처분하며 버텼지만,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 밀수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까지 막히다 보니 북한 주민의 생활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수록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무역과 밀수, 시장 활동이 중단되고, 식량과 물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계속 북·중 국경만 봉쇄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며, 김정은 총비서도 이 부분을 간과할 수만은 없을 것이란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심지어 국경 봉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북한과 교역으로 먹고살았던 중국 상인들 사이에서도 북한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단둥시의 한 대북 무역업자에 따르면 2년 가까이 기다림에 지친 이들은 ‘국경 봉쇄를 풀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백신 보급의 지연 등으로 북·중 국경 봉쇄의 장기화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북한 당국이 다시 국경을 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상황과 북한 주민의 백신 접종 여부가 주요 변수이지만,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코로나 백신을 공동 구매하고 배분하는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가 북한에 중국산 백신 ‘시노백’ 약 300만 회분을 북한에 배정했지만, 중국 백신을

불신하는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또 이미 약 200만 회분이 배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부작용을 우려해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북·중 국경의 재개방을 위해서는 북한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데, 백신 확보와 접종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중·후반까지도 국경 문은 닫힐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또 북한이 시장 통제의 강화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는 분명한 신호들이 감지됐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정책적으로 이를 계속 이용하려 한다면 백신 접종 이후에도 국경 봉쇄는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예상보다 일찍 북·중 국경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경제적으로 한계에 직면한 북한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북·중 국경을 개방하거나, 내년 2월에 있을 북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서라도 그 전에 국경 봉쇄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8월 말, 중국 내 중간 브로커에 따르면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에 이어 양강도 해산에서도 조금씩 북·중 간에 인적·물적 교류가 가능해졌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19 상황과 북한 내부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이전처럼 북·중 사이에 대규모 물자와 인력이 오가며 무역이 재개되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북·중 국경의 재개방에 관한 온갖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기대와 실망, 한숨과 절망, 불안과 좌절 등이 교차하는 북·중 국경도시의 답답한 상황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

+ 한미, 대북인도협력 논의… 성김 “北에 적의없어·언제든 만날 것”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왼쪽)가 8월 23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서울에서 북핵 수석대표 간 대면협의를 하고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북한과 대화 재개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번 협의에서 한미 양측이 보건과 감염병 방역, 식수·위생 등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재차 촉구하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8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1시간가량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협의 직후 노 본부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다며 “한미 양국은 보건 및 감염병 방역, 식수·위생 등 가능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방안, 국제

기구와 비정부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은 남북통신선 복원, 한미연합훈련 진행 등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협의가 끝난 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언급하면서 “남북 대화와 관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계속해서 남북 인도적 협력 사업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며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은 오래됐고 정례적이며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으로 한미 양국의 안보를 지탱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북한의 협상 상대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최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을 일축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

+ 김여정, 한미훈련 비난...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 14일 만에 불통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사전훈련 개시일인 8월 10일 담화를 내고 남한과 미국을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군은 끝끝내 정세 불안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했다"며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통상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할 때 '남조선 당국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는데, 이번에는 복수인 '남조선 당국자들'이라고 언급해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 김 부부장은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고 해 담화 내용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을 시사했다. 그는 "합동군사연습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연습의 규모와 형식에 상관없이 대북 선제 타격을 골자로 하는 침략적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미국과 남조선 측의 위협한

전쟁 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미국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라며 "현 미 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외교적 관여'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란 저들의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며 "그 어떤 군사적 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을 보다 강화해나가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은 북한이 한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며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이어 북한은 8월 10일 오후부터 남측의 정기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9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통신을 일방적으로 단절하였고, 13개월만인 지난 7월 27일 전격 복구되었으나 14일 만에 다시 불통상황을 맞았다.

금번 한미연합훈련은 8월 10일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으로 시작되어 26일 종료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 확산과 돌파 감염 등의 상황을 고려해 훈련장소를 여러 곳으로 분산하고 필수 인원만 참가했다. 미군 증원군의 불참 등으로 전반기보다 참가 인원은 대폭 축소됐다. 이번 훈련은 연례적인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훈련

으로, 실병기동훈련(FTX)은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시행됐다. 전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기 때문에 실전 환경을 모사한 '위게임' 형식으로 실시됐다. <참고: 연합뉴스 / 언론보도 종합> 🐟

+ 북한 댜친 수해...

함경남도 주민 5천명 긴급대피·주택 1천여호 침수



북한 함경남도 지역에서 폭우로 제방이 붕괴하면서 주민 5천명이 긴급 대피하고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됐다. 조선중앙TV는 8월 5일 "함경남도 여러 지역에서 폭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폭우로 강 하천 물이 불어나 제방이 터지면서 1천170여 세대의 살림집(주택)이 파괴 및 침수되고 5천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보도했다. 또 농경지 수백 정보가 매몰·침수·유실됐으며 도로 1만6천900여m와 다리 여러 곳이 파괴되고, 강·하천 제방 8천100여m도 수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북한이 지난해 수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지만, 이달 초 며칠 사이에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집중되자 홍수가 발생한 것이다. 이 지역에는 이달 1일부터 많은 비가 쏟아졌다. TV는 "지난 1일 18시부터 2일 19시까

지(함경남도) 도적으로 평균 113mm의 비가 내렸다"며 "특히 함흥시, 신흥군, 낙원군, 영광군 강수량은 149~307mm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하루 남짓한 시간에 지역에 따라 최대 300mm의 비가 내린 셈이다. 또 1~3일 사흘간 함경북도 부령의 강수량이 583mm를 기록했고, 함경남도 신흥에는 308mm, 함흥에는 202mm의 비가 내렸다.

함경남도에 홍수가 발생한 지역 열흘 만에 이번에는 함경북도에 거센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잠기는 등 물바다가 됐다. 특히 함북 화대군에는 이날 하루 400mm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다. 중앙TV가 보도한 화대군 영상을 보면 폭우로 완전히 흠탕물에 잠긴 도로로 자동차가 천천히 이동하고, 주민들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지 못한 채 물길 위로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함경도를 중심으로 연일 폭우가 이어지면서 북한은 지난 5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로 함경남도 당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고 수해복구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어 군 부대를 수해 지역에 급파하고 김덕훈 총리가 함경남도의 큰 물(홍수) 피해복구 사업을 현지에서 점검했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

+ 유엔사무총장 “북한 인권·식량 상황 더욱 악화... 1060만명 위협”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이 북한 당국의 코로나 봉쇄로 주민들의 식량사정과 인권 침해가 더욱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북한 인구는 106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의 막무가내식 국경봉쇄로 아이들과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제76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코로나 대응 조치가 특히 식량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기존의 인권 침해 우려들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직장들이 대거 문을 닫았고 시장에 유통되는 식량의 양과 질이 떨어졌다고 했다. 특히 식량과 필수 농자재 수입도 어려워져 주민들의 식량 불안정 문제가 심화됐고 식품 다양성도 악화됐다

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국내 이동 제한 조치로 2020년 8월 이후 국제 구호요원들과 외교관들이 북한에 입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필수적인 인도주의 물품들이 북한 국경 밖에 묶여 있고 북한 내부 현장 방문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 3월 중순에는 유엔 소속 국제요원들이 단 한 명도 북한에 남아있지 않게 됐고, 이로 인해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생명선이 없어졌다고 했다.

보고서는 2021년 현재 106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인도주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국경과 시골 지역의 취약 계층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5살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의 상황이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코로나 조치들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 내 인권 침해 유형이 되풀이되는 것을 새로운 정보로 계속 확인했다고 했고, 북한 내에서 주민들에 대한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했다.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
핵보유 이후 국가의 행동 변화

저자: 김태형 외

출판사: 사회평론아카데미

발행일: 2020년 5월 13일

가격: 25,000원

이 책은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된 논문집이다. 책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시 일어날 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문들로 구성되었다. 저자들에 의하면 이 책의 주요한 문제의식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점점 더 고도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공식적 핵보유국 다섯 나라(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외에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국제 ‘비확산 레짐(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de factor)’ 핵보유국으로 여겨지고

있다. 북한은 2005년 2월 핵보유를 선언하고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6번의 핵실험을 감행하여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선언하였다. 국제사회는 아직까지 북한을 ‘사실상(de factor)’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북한수준의 핵실험을 한 국가들이 ‘사실상(de factor)’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볼 때 “사실상 ‘사실상 핵보유국’”(“de factor ‘de factor nuclear power’”)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책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북한이 핵보유 이후 어떠한 대외전략

과 정책을 펼칠지 분석한다. 이 책의 머리말에서는 이 책의 세 가지 방향성을 설명하는데 첫째, 국가들이 핵 보유 이후 대외적으로 어떠한 행동변화를 보이는지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는 것. 둘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신흥 핵무기 보유국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 셋째,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실험이 북한의 대외전략과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향후 전개될 북한의 행동을 예측해보는 것이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부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국가들의 행동방식”으로 과거 핵개발을 시도한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와 그 결과들 그리고 핵보유 이후 국가들의 국방정책 변화를 설명한다. 특히 제3장 “핵무기 보유 추진 국가들과 경제제재”에서는 미국의 제재를 통한 핵무기 개발 저지의 성공 사례로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실패사례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을 비교하고 있다. 4장에서는 핵보유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방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설명한다. 제2부는 실질적 핵보유국의 경험이 한반도와 북한에 주는 함의를 설명한다. 1부에서 다루었던 핵 미보유국(non-nuclear power)이 실질적 핵보유국(de factor nuclear power)이 된 후 변화된 국방정책이 적성국과 주변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

북한의 핵능력은 기존 핵보유국 5개국과 비



〈공식적 및 사실상 핵보유국과 핵무기 보유 현황. (KBS 인포그래픽)〉


공식 핵보유국 3개국의 바로 뒤를 잇는 상태이며 투발수단까지 보유한 상황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안하고와 관계없이 남한과 주변국들은 북한의 심각한 핵 위협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한국에 비해 열세를 보인다. 또한 북한은 냉전시기 소련, 중국과 동맹을 맺었으나 동구권 붕괴 이후 1996년 러시아는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간주되던 동맹을 갱신하지 않아 북소(러) 동맹은 자동 폐기 되었으며 북중동맹은 아직까지 유효하긴 하나 그 동맹의 성격에 있어 한미 동맹에 비해 낮은 결속력을 갖는다. 이러한 상황의 북한을 기존의 비공식 핵보유국들과 비교하자면 강대국의 안보지원여부는 인도와,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열위 문제에 있어서는 파키스탄과

같은 입장이 된다.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강력한 동맹의 전폭적 지원이 없고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서도 적국보다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할 때 그 핵보유국은 자신의 핵전력을 과장하게 된다. 해당국가가 현상타파를 추구할 경우 핵무기의 ‘정치적’ 위력 나타내어 상대국의 대응 공격을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어 자신의 도발이 전면전으로 격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그 국가는 치밀한 도발과 군사력 사용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이 책의 7장에서 이장욱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과거 사례들을 분석하여 과거 핵개발 성공국가들의 입장변화 사례가 북한에 주는 함의를 정리하였는데 그의 분석의 결과는 첫째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외정책 기조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는 것. 둘째 북한의 핵무장은 지속적으로 고도화 될 것이라는 것. 셋째 핵무장 이후 북한은 공세적인 군사독트린의 수립과 함께 재래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다. 저자의 말마따나 실제로 북한 외무성 부상 최선희, UN대사 지성남 등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실험을 이어가며 핵 관련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재래 군사도발의 확대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 책은 북한의 핵보유와 그것이 가져올 변화라는 같은 주제를 분석하지만 저자들의 입장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다. 가령 1장에서 이근욱 서강대 교수는 북핵의 위협에 대해 과장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는 반면 이장욱(7장)과 김태형 숭실대 교수(8장)는 ‘북핵 위협의 강조’를 북한이 현상타파의 입장을 취할 것에 대비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 이 책에서 각 저자들에 의해 가장 자주 인용되는 학자는 비핀 나랑 (Vipin Narang) 이다. 그는 MIT교수로서 핵문제와 국제역학관계의 연구를 선도해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이 책에서도 인도 파키스탄 사례에 대한 그의 분석과 그가 유행시킨 개념 “핵 태세(Nuclear Posture)”를 중심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이 책의 논문들이 쓰여지게 된 프로젝트는 2017년에 연구비를 지급받아 진행되었으며 이 책 또한 2018년에 출판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상황이 급진전되면서 “북핵”이라는 민감한 주제의 도서를 출판하는데 부담을 느꼈는지 2020년에야 출판이 되었다. 그사이 저자들이 인용했던 나랑(Narang) 교수는 연구영역을 북핵문제로 확장하였고 최근에는 북한에 대한 글과 강연을 많이 이어가고 있다. 그리하여 나랑교수의 이론을 바탕으로한 학자들의 논의가 아닌 나랑 교수 자신의 북핵 논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학술지 Foreign Affair 2019년 5월호에 나랑 교수가 기고한 “Why North Korea Is Testing Missiles Again.”과

2021년 3월 26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온라인으로 주최한 북핵문제 학술회의에서 있었던 그의 발표 “미국 바이든 정부의 북핵 전략 및 한반도 평화 전략 (The Biden Administration’s strategy towar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Korean peace process)”¹에서는 최근 나랑 교수의 북핵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볼 수 있다.

북핵문제는 남한과 북한 국가외교에 있어 최고의 이슈이자 동북아 역학관계의 핵심 변수이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도서들이 많지만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서적은 대부분 학술서적들로 북한의 핵개발 현황과 과정을 설명하는 책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 책은 “북한이 비공식 핵보유국이 된다면 그것이 남북관계와 주변국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과거 핵보유국 사례들을 소개하고 그것이 북한에 주는 함의를 보여주는 방법을 통해 설명한다. 국제적으로 학계에 통용되는 개념을 설명하느라 영어가 자주 사용되지만 모두 괄호 처리되었다. 개별논문에 따라 독자에 대한 배려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학술서답지 않게 매우 친절한 제목, 친절한 머리말과 한눈에 들어오는 구성으로 전문가들만이 아닌 일반인들도 북핵문제에 쉽게 다가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¹ 해당 발표는 유튜브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 공개되어 있다.

1.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경 봉쇄로 인한 물자 부족과 방역을 목적으로 한 각종 이동통제와 시장 활동 제한은 주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시장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7.2%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곡물을 제외한 식료품의 가격 상승률이 39.1%로 두드러졌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북중 무역 봉쇄로 가격이 크게 오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백신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이 코로나 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하고 북한주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가 장기간 계속되는 가운데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WFP)등이 신청한 대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가 1년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단체들은 환자용 인공호흡기와 산소 농축기, 산소 농도계를 비롯한 신생아 인큐베이터, 백신냉장고 등의 물품과 기본적 농자재들을 북한에 지원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국경봉쇄로 인해 많은 물품이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재면제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에 감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물품이 어서 북한으로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수해로 피해 받은 북녘의 수재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올해 함경도를 중심으로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함경남도를 중심으로 1천170여 세대의 주택이 파괴 및 침수되고 5천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9월에 늦은 장마 예보도 있어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사회기반시설의 열악하고 자연재해에 취약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재해의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수재민들이 하루 속히 생활의 터전을 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이 더 큰 재해 없이 무사히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간의 대화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차단하였던 남북 통신선이 13개월만에 재개통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는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14일만에 다시 단절되었습니다. 남한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협력을 제안하고 있지만 북한은 내정간섭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의료 분야의 협력 등 새로운 대화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비핵화의 진전 및 인권 상황 개선 등 오랜 난제에도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북한 선교를 위해 해외 선교 현장에 머물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선교 현장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을 목적으로 한 강도높은 통제로 인해 해외 거주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활동이 계속해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선교사님들은 직접적인 추적과 해킹 및 도청 등 직접적인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본국으로 귀국한 선교사들의 경우 비자 발급 지연 및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기도 제목

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안전과 보호의 기도를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협하는 악한 움직임들이 중단되고 안정적인 신분으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로 인한 병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6. 북한선교현장에 더 많은 일꾼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시요. 북한의 국경은 오랜 기간 닫혀 있으며 밀수업을 하는 사람도 발각될 경우 국가적 방역에 반한다는 이유로 심하면 처형까지 당하는, 극도로 경직된 상황입니다. 탈북자들의 수도 줄었고 선교현장 당국의 통제도 극심합니다. 수년째 다수의 선교사들의 비자발적 철수가 이어지고 있고 남아있는 선교사의 사역도 일부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헌신된 선교사는 늘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일수록 남아있는 선교사들의 어깨는 무거워집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운 것 같이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선교의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며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와 북한선교 현장에 준비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7.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과 북한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 동남아 국가들의 국경이 막히면서 불안감 속에서 하루 속히 코로나 상황이 풀리길 기다리며 숨어있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또 강제 결혼 등으로 해외 체류하는 북한 여성들은 방역으로 인해 강력해진 통제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도 장애를 받으며, 또 발각의 두려움 속에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사역지에서는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어 비밀리에 가지던 예배 모임, 성경공부 모임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불안감 속에 있는 동포들이 안전하게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 속히 극복되고 국경통제가 완화되어 각 분야의 미뤄진 사역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8. 북한의 기독교 박해와 인권침해 중단을 위해, 특별히 갇힌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코로나 방역을 내무 통제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의 기독교인들은 더 큰 위기감 속에서 비밀리에 가지던 모임도 자제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 따르면 북한이 황해도 지역에 수용소를 추가로 신설하고 더 많은 이들을 수용소로 보내고 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지하에서 비밀리에 신앙을 이어가는 성도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신앙으로 인해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 감옥에 갇힌 북한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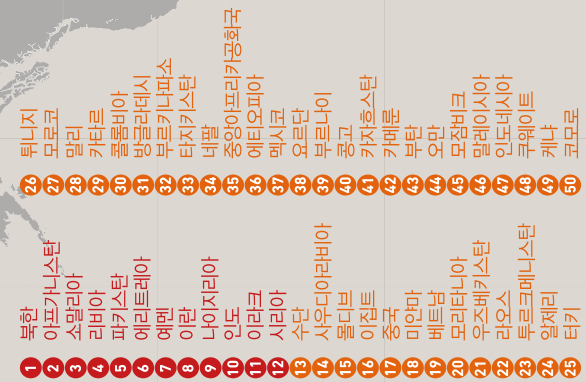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1년 9월 1일

World Watch List 2021 월드와치리스트- 기독교박해지도

크리스천들을 가장 박해하는 국가 TOP 50



박해수준

● 극심한 수준의 박해 ●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는 크리스천의 박해가 가장 심한 50개 국가들의 순위를 정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오픈도어 분석가들이 150개 국가의 현장으로 부터 오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각 국가의 박해수준은 오픈도어가 이용하는 평가 점수 시스템에 의해 기록됩니다. 이것은 폭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생활 가운데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자유가 보장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픈도어의 조사 방법과 결과는 국제종교자유기구 (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에 의해 감사를 받습니다. WWW.2021.10월1일부터는 2020년 9월30일까지 기간에 해당됩니다.

"내 삶과 조국을 위해 내 마음과 꿈을 다시 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은 민주주의 사회에 정착하지 못 했거나 지난 후, 더 중요하게는 많은 기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어놓은 나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오늘 열린 마음으로, 나는 북한에 대한 나의 꿈과 희망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탈북 디모데 형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11:33



2021 오픈도어 온라인 북한선교학교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에서 온라인을 통해 2021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북한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될 이번 선교학교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실제적인 선교 참여의 계기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1. 강의 일정

- 기간: 10월 12일-11월 30일 (8주 과정)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2. 주제: 복음의 현장에서 북한을 품다

3. 강의 목록



날짜	주제	강사
1강 (10월 12일)	북한 선교 개론	김성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총신대 명예교수)
2강 (10월 19일)	북한의 사상과 체계에 대한 성경적 접근	정종기 (고신통일선교원 원장, 아세아연합신대 교수)
3강 (10월 26일)	국내 탈북민 복음화와 통일선교	강디모데 (엔케이피플 선교회 대표)
4강 (11월 2일)	미디어를 통한 북한선교	성훈경 (북방선교방송 대표)
5강 (11월 9일)	탈북자 사역과 국제 NGO의 북한선교	팀 피터스 Tim Peters (Helping Hands North Korea 대표)
6강 (11월 16일)	해외 북한 여성 사역	오픈도어 사역자
7강 (11월 23일)	해외 북한선교현장	
8강 (11월 30일)	북한 지하교회와 내지선교	

(강사 및 일정 변경 가능)

4. 접수

- 9월 1일 - 10월 6일까지 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www.opendoors.or.kr)에서 온라인 접수 진행
- 등록비: 4만원 (목회자, 신학생, 탈북민 50% 할인)

5. 문의: 오픈도어선교회 다니엘 간사 (Tel: 010-5107-8448, E-mail: info@opendoors.or.kr)



한국 오픈도어

천사게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